

전남, 석유화학·철강 위기 대응 203억원 긴급투입

여수·광양·순천 중심 14개 세부사업 추진 최대 300만원 취업장려금 등 고용충격 완화 실직자 직무 전환 교육·상담 등 재취업 지원

전남도가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3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 근로자 생계 안정과 재취업, 기업의 고용 유지까지 동시에 겨냥한 대응이다.

전남도는 31일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순천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실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과 재취업까

지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 분야에는 122억원이 투입된다.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자에게 각각 50만원의 건강복지비를 지원하고, 여수 지역 기업 신규 취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해 초기 정착을 돕는다. 실직자에게는 긴급생계안정비 50만원과 구직활동 수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직무 전환 교육과 취업 상담도 병행한다. 기업 지원도 병행된다.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고정비용을 지

원하고, 신규 채용 시 인당 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고용 유지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철강 분야에는 81억원이 투입된다. 상용직 근로자 건강복지비 50만원과 함께 신규 취업자 및 전직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생애 최초 비 50만원과 구직활동 수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직무 전환 교육과 취업 상담도 병행된다. 150만원의 훈련수당도 제공한다. 광양·순천 철강 기업 역시 최대 1500만

원의 고정비용을 지원받고, 신규 채용 시 인당 600만원의 장려금을 통해 고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건강복지비와 구직활동 수당 등 주요 사업은 4월 1일 공고 후 접수에 들어가며, 나머지 사업은 4월 말 별도 공고된다. 온라인 접수는 4월 8일부터 전남일자리정보망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4월 15일부터 여수·광양·순천 상공회의소 등에서 진행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과 함께 4조6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선정 등 구조적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순우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지원 효과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관광데이터 플랫폼 구축 업무 협약식

2026. 3. 31.



광주관광공사와 LG유플러스는 31일 '광주·전남 통합 관광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관광공사, 데이터 기반 초광역 관광 모델 개발

LG유플러스와 업무협약...관광데이터 플랫폼 본격 추진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축제 분석...지역 관광 활력 기대

광주관광공사가 통신과 소비 등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이동 경로와 소비 패턴 분석, 광주 도심과 전남 자연·해양 자원을 연계한 초광역 관광 모델을 설계한다. 광주관광공사(사장 정재영)와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31일 광주·전남 통합 관광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관광 데이터 인텔리전스 구축, 디지털 마케팅 최적

화,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실시간 관광 트렌드를 분석한다. 특히 축제 방문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마케팅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양 기관은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광주·전남을 데이터 기반 관광 혁신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전국 확산이 가능한 표준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동등한 관광객 수 등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던 관광 기초자료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시됨에 따라 검증 가능한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감형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상무)은 “LG유플러스는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 NPU기반 인공지능 생태계 본격 조성

광주시가 '국가 NPU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과 연계해 기술 자원과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의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문기업들과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3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대원씨티에스(주), 망고부스트(주), 오케스트라클라우드(주)와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컴퓨팅센터의 구축과 운영, 기술 고도화 전반에 협력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관련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협약 기업들도 참여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광주시는 3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대원씨티에스(주), 망고부스트(주), 오케스트라클라우드(주)와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원씨티에스·망고부스트·오케스트라와 업무협약 체결 국가 NPU 컴퓨팅센터 연계... 기술자문·실증환경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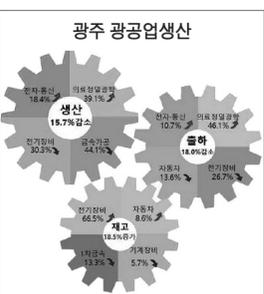
NPU(Neural Processing Unit·신경망처리장치)는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해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차세대 반도체로, 국가 NPU 컴퓨팅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기관이 AI 서비스 개발과 실증·검증을 할 수 있는 공공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이 단순 모델 개발을 넘어 실제 서비스 운영과 추론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다. 특히 기존 GPU(Graphics Processing Unit·그래픽처리장치) 중심 환경을 보완하는 차세대 인프라로서, 전력 효율성과 추론 성능이 뛰어난 NPU 기반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GPU는 본래 그래픽 처리용으로 개발됐지만, 뛰어난 병렬 연산 능력으로 현재 AI 학습과 연산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 자문 및 협력 △국산 AI 반도체 기반 실증환경 조성 △AI 기업 유치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협력 확대에 나선다. 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 NPU 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AI 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광공업생산 15.7% 급감...소비·건설은 반등

전남 생산·소비·건설 호전

부진하던 광주지역 소비와 건설이 반등했지만 광공업 산업지표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31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팀이 발표한 '2026년 2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전자통신(18.4%), 의료정밀광학(39.1%), 담배(0.2%) 등은 증가했지만 전기장비(-30.3%), 금속가공(-44.1%), 자동차(-7.3%) 등에서 감소했다. 출하도 1년 전보다 18.0% 줄었다. 전자·통신(10.7%), 의료정밀광학(46.1%), 나무제품(0.4%) 등이 증가했지만, 자동차(-13.6%), 전기장비(-26.7%), 금속가공(-44.6%) 등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재고는 전기장비(66.5%), 자동차(8.6%), 고무·플라스틱(23.5%) 등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했다. 1차금속(-5.7%), 기계장비(-5.7%), 금속가공(-8.0%) 등은 줄었다.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3.8로 전년 동월 대비 13.1% 증가하면서 3개월의 부진을 끊어냈다. 백화점 판매와 대형마트 판매가 각각 11.1%, 16.4% 증가했다. 2개월 연속 감소한 건설수주액도 84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7.8% 증가했다. 발주자별로는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의 공공부문은 99.6% 감소했지만 부동산, 운수·창고·통신 등 민간부문에서 406.2%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48.2% 감소했던 건설수주액의 반등을 이끌었다. 공종별로는 철도·궤도, 토지조성 등 토

목부(-84.6%)는 감소하고, 주택 등 건축부문(346.8%)은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3% 늘었다. 화학제품(10.2%), 1차금속(13.3%), 기계장비(38.9%) 등이 늘고, 전기·가스업(-19.7%), 기타운송장비(-16.7%), 금속가공(-25.1%) 등이 감소했다. 출하는 전년동월 대비 2.6% 줄었는데, 전기·가스업(-18.4%), 기타운송장비(-17.1%), 금속가공(-21.4%)의 영향이 컸다. 재고는 같은 기간 7.0%가 증가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화학제품(10.7%), 1차금속(9.3%), 식료품(9.9%) 등에서 증가하고 금속가공(-53.1%), 종이제품(-65.8%), 석유정제(-0.8%) 등이 줄었다.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6.7로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했다. 건설수주액은 제1차 금속, 석유·화학 등 민간부문 36.1%에서 감소했지만 공기업,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281.3%로 수주가 늘어 1874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3.0%가 증가했다. 양재호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전남도, 기존 2억에서 4억3000만원 상향...공종도 늘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강성진·사진)는 4월 1일 시행되는 전남도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확대 방침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2억원 미만이던 적용 대상 공사금액을 4억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적용 공종을 20개에서 33개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사장비 운영이 제한되거나 시공량이 표준품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품을 할증하는 공종과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에 대한 산출기준 마련, 설계 시 누락되기 쉬운 공종 보완 등이 포함된 점에서 현장 실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협회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계와 공사비 과소 산정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곧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책임 있는 시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개정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해 지역 건설업체가 적정 대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점검된 지역 건설경기에 조금이나마 활

력을 불어넣고 안전과 품질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진 도회장은 “이번 설계기준 확대 개정은 체감되지 않더라도 전남도에서 전문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준 전남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 확보는 단순한 경영 문제를 넘어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공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중앙회, 상반기 신규직원 860명 공채

총 860명 규모...내달 7일까지 온라인 접수

올해 상반기 전국 농·축협에서 근무할 신규직원 860명을 공개 채용한다. 농협중앙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국 농·축협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

다고 31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860명이다. 이번 채용은 연령·학력·성별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5월 17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와, 6월 2일 면접을 거쳐 6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 열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